AUTHOR 이정숙

TITLE 깔뱅의 신학과 목회로 한국교회를 돌아보다

IN 기독교사상
(5. 2009): 32-42

깔뱅의 신학과 목회로 한국교회를 돌아보다

이정숙_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 내 생각에 복음의 가장 큰 적들은 로마의 교황도, 이단도, 유혹하는 자들도, 독재자도 아닌 바로 '나쁜 그리스도인들' 입니다. … 선한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이 무슨 쓸 데가 있겠습니까? 진리 자체인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악한 삶이 도처에 깔리고 행하는 것이 말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면 나를 두 번째로 이 도시에서 내치셔서 새로운 망명지에서 고통의 쓰라림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지 않다면 준엄한 법이 교회를 다스리게 하소서 순전한 권징과 훈련을 다시 세우소서.

이상의 인용문은 장 깔뱅이 제네바 시의 초청으로 두 번째로 제네바에 들어가면서 한 말의 일부인데 깔뱅의 후계자 테오도르 베자에 의해 전해지고 있다. 깔뱅의 말대로 하자면 그가 제네바 목회에서 크게 관심을 가진 것은 "나쁜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기 위해 교회가 준엄한 법과 권징을 실천하며, 말한 것과 행하는 것에 일치가 일어나도록 복음을 바르게 세우도록 하는 것이었다. 신학자로서의 깔뱅이 개신교 종교개혁의 제 2세대로서 개신교 신학을 집대성하였다면, 목사로서의 깔뱅은

신학자로서의 깔뱅이 개신교 종교개혁의 제2세대로서
개신교 신학을 집대성하였다면,
목사로서의 깔뱅은 자신의 현실 목회를 통하여
가톨릭과 재세례파와 확실하게 구분되는 목회의 본을 제공하였다

자신의 현실 목회를 통하여 가톨릭과 재세례파와 확실하게 구분되는 목회의 본을 제공하였다. 세계 깔뱅학계에서는 신학자로서의 깔뱅을 넘어서 목사로서의 깔뱅에 대한 많은 연구를 시도하였고 오랫동안 고문서도서관에 갇혀 있었던 컨시스토리(Consistory)회의록 읽기와 번역, 그리고 그에 근거한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어 16세기 깔뱅 당시의 제네바 시와 제네바교회의 목회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1]

또한 집사직과 관련된 제네바병원의 복지사역 역시 제네바 목회의 연장선에서 많은 연구가 있다. 한국깔뱅학계 역시 이러한 연구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부 소개되기도 하고 있으나 아직 다양성 면에서 발군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깔뱅의 신학과 목회에 근거한 장로교회와 개혁전통(the Reformed tradition)의 교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깔뱅의 신학과 목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건설적인 토론이 더 많이 필요하다. 깔뱅 500주년이 이러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어 한국교회가 고질적인 질병들이 치유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글에서는 깔뱅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염두에 두면서 제네바 목회의 특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깔뱅과 제네바와의 인연

프랑스 태생의 깔뱅이 제네바 시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 제네바는 1535년에 개신교로 집단 개종한 시였는데 깔뱅은 1536년 이 도시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룻밤을 머무르게 되었다. 그날 밤 이미 이 도시에서 사역하면서 역부족을 경험한 파렐 목사의 강력한 협박성 권고에 의해 제네바에서 함께 목회하게 된 깔뱅은 사실상 학자로서의 삶이 더 잘 어울렸을 것 같은 이미지를 가

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막상 제네바 시에서 목회하면서 그는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제네바 시민들이 온전하게 기독교 복음을 이해할 것과 그에 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였다. 1538년에 제네바 시가 칼뱅과 프랑스계 목사들을 추방한 것은 바로 칼뱅이 요구한 개혁에 대한 강한 반발과 거부에서 비롯된 것이다. 1541년 겨울 칼뱅의 제 2차 제네바 입국이 이루질 때까지 제네바는 사실상 목회의 공백기를 경험하였던 반면, 칼뱅은 스트라스부르에서 마틴 부처(Martin Bucer)와 함께 개신교 목회를 기획하고 실험하는 건설적인 시기를 보냈다. 칼뱅의 제네바 재입국은 정치적으로 아이러니를 포함하고 있다.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제네바의 유지들에게 외국인에다가 개혁적 의지가 강한 칼뱅이나 프랑스 목사들은 상당히 불편한 존재였다. 그러나 가톨릭교회가 사돌레토 추기경을 통하여 제네바 시를 회유하기 시작했을 때 국제적인 엘리트나 지도자를 갖추지 못한 작고 보잘 것 없던 도시, 16세기의 제네바는 칼뱅에게 도움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칼뱅은 3년 전 매몰차게 그를 추방하였던 제네바 시민들의 환대 속에 제네바 시로 돌아오게 되었다.

칼뱅의 제네바목회의 특별한 요소들

칼뱅의 제 2기 제네바 목회는 1541년 교회법령(The Ecclesiastical Ordinances)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1547년 법령과 1561년 법령이 있는데 이러한 법령들은 1541년 법령을 보완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기능을 할 뿐 제네바교회목회를 전체조망하기 위해서는 1541년 법령이 기본적이다. 1541년 법령에 의하면 제네바 교회 목사, 교사, 장로, 집사라는 4중직분에 의해 목회가 일어날 것이며 이 4중직이 어떻게 시의회와 연결되어질 것인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4중직분을 활용한 칼뱅의 교회목회는 스트라스부르에서 부처와 함께 이미 실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제도가 제네바에서 꽃피우게 된 것이다. 비록 교사직분은 많은 경우에 사라졌지만 4중직을 통한 목회는 현재도 칼뱅주의 교회에 목회의 기본틀로 자리잡고 있다. 자, 이제 칼뱅의 4중직 이해가 어떤 면에서 특별하였는지, 또한 교회예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칼뱅이 평신도들과 함께 사역하는 협력모델을 추구한 것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개혁을 지향하는 정교협력형 개혁자(magisterial reformer)의 노선에 충실하면서
그것을 완성시킨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적절하다.
칼뱅의 이러한 선택은 성경적 목회론에 대한 그의 확신에 근거한다

목사와 평신도의 공동사역

16세기 당시 가톨릭교회가 사제중심주의를 재세례파가 회중중심주의를 택했다면 칼뱅의 선택은 목사와 평신도가 함께 사역하는 공동사역의 모델이었다. 가톨릭교회가 사제중심주의로 가게 된 것은 신학적인 이유는 물론이거니와 극히 제한된 성경보급과 높은 문맹률이라는 시대적 환경에서 결코 놀랄 일이 아니었다. 또한 가톨릭교회의 신학과 실천에 대한 철저한 반대와 전복을 주장하였던 재세례파가 사제가 없는 회중중심를 채택하는 것 역시 극히 자연스러운 시대적 결론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칼뱅이 평신도들과 함께 사역하는 협력모델을 추구한 것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개혁을 지향하는 정교협력형 개혁자(magisterial reformer)[2]의 노선에 충실하면서 그것을 완성시킨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적절하다. 칼뱅의 이러한 선택은 성경적 목회론에 대한 그의 확신에 근거한다.

칼뱅은 1559년 『기독교강요』에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직분들 중에서 4중직에 해당하는 4가지 직분은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존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3] 4중직분 중에서 목사와 교사는 신학적으로 충분히 훈련되어진 후에 그의 신학과 삶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그 활동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그런가 하면 교인들의 삶을 살피는 장로, 구제사역을 담당하는 집사인 평신도 대표들은 그들의 삶과 리더십으로 교인들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며 매해 그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었다. 이러한 목회실천신학에 근거한 제네바의 4중직은 교회사역 전반에서 목사와 평신도가 함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 칼뱅의 제네바 초기는 제네바 시민들로 구성된 평신도 그룹, 특히 장로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이용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자 하였지만 칼뱅의 탁월한 말씀사역과 언행의 일치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민자였지만 제네바 시민들의

진정한 리더로서 설 수 있게 하였다,

직분들의 동등성(Parity)과 동료성(Collegiality)

앞서 깔뱅은 4중직을 성경에 근거하는 항존직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 등에 의하면 모든 직분들은 은사를 거저 나눠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직분들 간의 우열이나 상하는 정해진 바가 없다. 사실 목회자와 평신도간의 협력모델은 기본적으로 루터에게서 시작된 만인사제주의나 개신교적 소명이해에 근거하고 있다. 사제의 소명이 평신도의 그것보다 더 귀하거나 서열이 높은 것일 수 없는 것은 모든 소명이 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각각의 은사에 따라 다른 기능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깔뱅주의자들이 깔뱅의 4중직 이해에서 직분들의 동등성을 읽어내는 것은 깔뱅의 확고한 성경중심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동등성을 인정하면서도 목사우선주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의 조바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깔뱅의 교회론에서 목사는 매우 중요하다. 교회의 표지(marks of the church)가 되는 말씀의 바른 선포나 성례전의 바른 시행은 목사의 절대적 임무가 되기 때문이다. 깔뱅은 가톨릭교회가 실패한 말씀사역의 중요성에 대하여 실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세 가톨릭교회의 그늘에서 말씀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던 평신도들과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목사들이나 교사들의 위치는 절대적이다. 말씀사역에 관한 한 목사들의 전문성은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을 이유로 목사들의 직분을 직분 중 가장 높은 직분으로 만드는 것은 4중직의 참 의미에 위배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직분자들은 서로를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동역자로서의 동료성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깔뱅주의 교회들은 동등성과 동료성 유지라는 대원칙을 강조하며 교회의 의사결정과정이나 직분자들의 권한과 의무 규정을 정교화하여 직분간의 견제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목회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4개 직분, 4개 기관

제네바에서 4개의 직분들은 4개의 독특한 기관들과 함께 일했다. 구체적으로 목

말씀사역에 관한 한 목사들의 전문성은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을 이유로 목사들의 직분을 직분 중 가장 높은 직분으로 만드는 것은
4중직의 참 의미에 위배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직분자들은 서로를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동역자로서의 동료성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사들은 제네바목사회(The Venerable Company of Pastors)와, 교사들은 학교와 1559년 이후에는 제네바 아카데미(Geneva Academy), 장로들은 컨시스토리, 집사들은 병원을 중심으로 사역하였다. 시민전체가 기독교인이었던 16세기 제네바는 현대교회와는 달리 교회와 사회 사이의 울타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4중직 역시 도시 전체를 위한 직분이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목사를 포함한 모든 직분의 임면권이나 사례가 시의회의 결정에 있었다는 사실은 깔뱅의 제네바 목회가 가진 독특한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음 항목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4개의 기관을 보기로 하자. 우선 목사회는 목사 청빙과 관련한 일체업무(자격심사 및 추천), 목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인 성경 및 교리 연구모임, 윤리적 삶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였다. 또한 개신교의 확장을 위해 유럽 각 지역으로 문서와 인력지원을 통한 선교활동을 하였다. 교사들의 활동무대였던 제네바 아카데미는 깔뱅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소원한 것이었는데 1559년에야 빛을 보게 된 고등교육기관이었다. 신앙과 학문간의 균형과 수월성이 있으며 영성 및 생활훈련에서 확실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알려져 이 학교는 빠른 속도로 유럽의 명문으로 등록하게 되었다.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도우는 훈련과 권징을 담당하는 기구였다.

장로들이 중심이 되고 목사들이 직무상 참석하는 이 기구는 매주 모여 교인들이 교회생활을 통하여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기독교인으로서 의무를 행하는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움이 없는지, 손해나 상해를 끼치는 일은 없는지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일을 하였기에 킹던(Kingdon) 교수는 이를 교육기관이며 상담센터요, 심리법정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정의한다. 컨시스토리는 업무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기와 법적 자격을 갖춘 소환관을 채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컨시스토리내에서 선서제도를 도입하여 증언의 신빙성을 높였다.

또한 일반심방제도를 채택하도록 하여 교인들의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피고 소환된 사람들의 죄의 질에 따라 수찬정지, 세례나 결혼에서 불이익을 받는 성례전 제외(sacramental exclusion)와 같은 출교를 실시하였다.[4] 제네바 병원은 집사들의 사역지였다. 제네바병원은 현대병원의 개념이 아니라 종합복지센터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환자의 치료는 물론이거니와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와 외국인들의 복지, 여행객들의 편의 도모 등과 같은 일들을 감당하였는데 이러한 집사들의 직무는 제네바 시가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시의회와의 긴밀하고도 전략적인 협력관계

이미 시사한 바 있듯이 깔뱅은 제네바교회를 목회하면서 시의회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1541년 이전 시의회는 외국인 목사인 깔뱅을 매우 경계하였지만 1541년 이후 그들도 이민자 목사들과 공존모드를 지켜가는 것이 도시발전에 크게 유익하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양자간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비교적 잘 유지되었다. 물론 시의회는 번번이 자신들의 권위를 교회의 우위에 두려고 시도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특별히 출교와 해벌권과 관련하여 깔뱅과 다른 목사들은 교회의 고유한 권한을 주장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시의회에 저항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555년 1월 이후 이 문제에 관하여 깔뱅과 목사들은 시의회로부터 확실한 동의를 얻어내었다. 이외에도 시최고의원 중 한 사람이 컨시스토리의 회장이 되던 관례와 관련하여 그들이 시최고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장로로서 컨시스토리에서 사역해야 할 것을 명시한 1561년 새 법령 역시 시의회와의 암묵적 갈등상황을 예시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깔뱅은 시의회와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며 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협력사역의 결과가 제네바에 상전벽해의 기적을 일으켰음에 틀림없는 것이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가 제네바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온전한 학교"라고 칭한 것을 보면 말이다.

공예배의 개혁과 강조

깔뱅은 스트라스부르에서 이미 시도하였던 공예배의 개혁을 제네바에서도 시도

제네바 예배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다른 회중찬송과 시편찬송의 도입이다.
가톨릭교회의 성가대 찬양을 대신하여 개신교교회들이 일제히 회중찬송을 도입하였다면
제네바는 여기에 시편찬송(Psalter)을 더하면서 말씀중심 예배의 진면목을 갖추었다

하였다. 공예배의 개혁에서 핵심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예배였다. 깔뱅은 요한복음 4장 22절을 주석하면서 가톨릭교회의 예배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으로 개신교 예배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그러므로 예배의 모든 예전은 제네바 사람들의 언어인 불어로 하고 설교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쉽고 분명한 말로서 성경을 강해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제네바 목사회는 목사후보자의 성경지식이나 교리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사람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목소리의 크기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심사하였다. 또한 고해성사가 없어진 상황에서 제네바 공예배는 참회의 기도를 도입부에 넣었고 목사는 "우리"를 사용하여 함께 죄고백을 하도록 인도하였다.

예배에서 설교가 "들리는 말씀"이라면 성만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일 년에 네 번 시행되었던 성만찬 전 주 컨시스토리는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일종의 심사기관의 역할을 하느라 바빴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정도 가톨릭교회에서 성만찬 이전에 고해성사를 요구하던 것과 유사하지만 성만찬에 대한 그들의 신중한 자세는 현대교회와 교인들이 마땅히 배울만한 것이다. 제네바 예배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다른 회중찬송과 시편찬송의 도입이다. 가톨릭교회의 성가대 찬양을 대신하여 개신교교회들이 일제히 회중찬송을 도입하였다면 제네바는 여기에 시편찬송(Psalter)을 더하면서 말씀중심 예배의 진면목을 갖추었다.

한국교회를 돌아보다[5]

한국교회는 4중직에서 기원된 3중직을 효과적으로 분화시키고 권사직을 추가한 4중직을 목회사역에서 적극 활용하였다. 집사직의 경우, 서양교회에서 집사라면 안수집사를 의미하는 것에 비해 한국교회는 서리집사를 안수집사 전에 두고 다수의

평신도들에게 이 직분을 허용하고 있다. 집사가 원래 구제를 위해 세워진 직분이며 제네바에서 전문 사회복지사에 해당하는 사역을 한 것과는 달리 한국교회의 집사는 교회의 온갖 봉사를 담당하는 직분으로 교회에서 최고의 일군이 된다. 또한 여성안수를 부인하면서 등장한 권사직분은 여성안수를 실시하는 교단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직분은 많은 여성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로가 될 수 없는 여성들에게 명예직처럼 주어지지만 안타깝게도 교회의 최고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을 효과적으로 배제하는 역기능을 하기도 한다.

한국교회에서 나타나는 직분의 분화현상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교회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다양한 직분들이 한국교회문화를 평등하고 동료적이라기보다는 위계질서화시킨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서리집사는 안수집사가 되기 위해 안수집사는 장로가 되기 위해, 또 권사가 되기 위해 자신의 가족과 직업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교회에 봉사하고 고액헌금을 하는 현상은 직분의 위계화 현실이 가져온 부작용이 아닐 수 없다. 그 뿐인가? 장로선거의 과열현상은 금전선거, 부정선거로 이어지기도 하며 남편을 장로로 만들기 위해 온갖 봉사를 마다하지 않는 장로후보 부인들의 눈물겨운 사연들은 한국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교회형 기현상이 아니겠는가.

한국교회는 교단에 관계없이 장로교회화 되어 있다. 장로제도를 선호하는 한국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의 갈등은 날로 더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목사들은 흔히 자신들을 성직자로 칭하면서 다른 직업을 세속직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개신교적인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직이다. 목사직을 성직으로 간주하는 것을 굳이 경계해야 하는 것은 한국교회에서 목사들의 권위의식이나 특권의식이 짐짓 수위를 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목사들은 위원회나 당회의 결정을 거쳐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권위가 침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일쑤이다. 심지어 당회에서 의사결정과정을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기도 한다. 물론 장로들 또한 자신들을 교회의 주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교회의 일에 자신의 이권을 개입하지 않고 평신도들의 대표로서 대신 교회의 일을 돌보는 고유한 권한을 겸손하게 귀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가 커지면서 경제적인 이권마저 교회의 갈등에 개입되어 있는데 이를 해결할 노회나 총회마저 공정성을 잃고 금전수수와 인맥형성으로 인한 비리가

한국교회는 교단에 관계없이 장로교회화 되어 있다.
장로제도를 선호하는 한국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의 갈등은 날로 더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목사들은 흔히 자신들을 성직자로 칭하면서 다른 직업을 세속직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개신교적인가?

있다하니 제네바와는 달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시의회나 가톨릭교회와 같은 강력한 중앙본부가 없는 개신교회의 갈등과 분열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답답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뱅이 추구한 예배의 갱신과 평신도들의 교육, 선교가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비록 한국교회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의 삶의 모범이 여전히 부족하여도 말씀의 자정효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해 볼 일이다. 기독

이정숙 | 교수는 이화여대 사회학과,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MDiv), 미국 드류대를 거쳐 프린스톤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로 철학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 교회사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註)

1)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흔히 '당회'로 번역되어진다. 필자가 굳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굳이 비교하자면 현재 화란계 개혁교회의 컨시스토리와는 달리 당회보다는 오히려 노회에 가깝기 때문이다.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제네바와 인근지역의 교회들 전체를 섬기는 목사들과 장로 그리고 서기와 소환관으로 구성되어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훈련과 권징을 담당한 기구였다.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매주 목요일 모였으며 회의록이 비교적 잘 보관되어 있다. 그러나 고대불어와 속기체에 대한 부담으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다가 Robert Kingdon 교수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 전체 음역이 이루어졌고 일부는 영역된 바 있으며 내용에 대한 다양한 주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 'Magisterial reformer'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부류 중 하나로서 재세례파가 정치와 자신들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과 대치되는 입장을 견지한다. 세속정치와 교회가 연합협력하여 개혁을 주도하는 개혁자들로 루터, 츠빙글리, 부처, 외코람파디오스, 깔뱅 등의 개혁자들이 이에 속한다.

3)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2 vols., trans. F. L. Battles, ed., J.T. McNeil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IV. iii. 1-9

주(註)

4) 컨시스토리에 관한 연구는 필자의 "출교에 관한 존 깔뱅의 신학과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활동" 『최근의 깔뱅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306-329나 "제네바 컨시스토리: 깔뱅의 신학과 목회의 접목", 『한국기독교신학논총』18집, (한국기독교학회, 2000)을 참고하시오.

5) 깔뱅으로 이해하는 한국교회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한국교회사학연구원의 "깔뱅탄생 500주년 기념 심포지엄"(2008년 11월 1일) 자료집과 바른교회아카데미 주최 "한국교회와 민주주의"(2009년 2월 27일) 자료집에 일부 중복 소개되어 있다.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
엘시 맥키(Elsie A. McKee)교수 칼빈강연회

올해는 개신교 종교개혁을 신학적으로 집대성하고 제네바교회목회를 통하여 장로교회 및 개혁교회의 전통을 수립한 요한 칼빈(John Calvin)의 탄생 500주년이다. 세계교회가 함께 칼빈의 신학적 전통을 살펴보고 현대교회를 위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이때에 칼빈신학의 대가인 미국 프린스톤신학대학원의 엘시 맥키교수님을 모시게 된 것은 한국교회와 신학계에 큰 기쁨이다.

엘시 멕키교수님의 이번 방문은 대만과 일본의 칼빈신학자들과 함께 기획된 아시아 강연회인데 한국에서는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가 초청교이다. 엘시 A. 맥키교수님은 자이레(현 콩고)에서 2대째 미국장로교선교사님이셨던 부모님에서 태어나 대학이전의 교육을 현지에서 받았다. 이후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를 거쳐 미국 프린스톤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로 박사학위(Ph. D.)를 받고 앤도버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교수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모교인 프린스톤신학대학원에 종교개혁사와 예배사를 가르치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갖고 교회사가 서양중심의 교회사가 아닌 세계 모든 교회가 중심이 되는 교회사를 가르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칼빈연구로 장로직과 집사직 연구와 관련된 성경해석사, 칼빈의 목회적 영성이해, 그리고 여성종교개혁자 캐타리나 슈츠 젤에 관한 연구는 단연 독보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강연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5월 24일 새문안교회 특강: "목사 칼빈의 일주일"

5월 25일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한국칼빈학회 "기독교강요 불어 1판에 나타난 목회적 음성"

5월 26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채플설교 및 특강, "칼빈의 설교: 보물과 서프라이즈"

5월 27일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교 특강, "설교자 칼빈"

5월 28일 호남신학대학교 채플설교 및 특강, "목사 칼빈"

6월 1일 고신대학교 특강, "칼빈의 설교"

6월 2일 부산장신대학교 채플설교 및 특강, "칼빈과 기도"

엘시 맥키교수 한국호스트: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교 이정숙교수(jslee@ttgst.ac.kr)